

로 전설하고자 하는 자들과 혁명에 버금가는 투쟁을 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사실상 프랑스 대혁명이후의 혼란은 그런 식의 인간의 투쟁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는가?

혁명이 인간의 자기가 원하는 사회실현이라는 동기에서 생겨졌는데 그런 사회를 세우는 일이 신적인 일이거나 철학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므로서 그런 사회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정당화 또는 聖化된다는 헤겔이후의 사회주의의 사상을 우리는 배격해야 하고 또 동시에 혁명이 그 속에 지니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사회건설의 요소를 긍정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프랑스의 유토피아사상도 역시 사회적 투쟁의 불씨를 안고 있으니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 보다는 내가 바라는 사회형태를 위한 노력이전에 사회일원들을 더욱 사랑하는 사랑을 간직해야 할 것인데 그 길만이 프랑스 유토피아주의자들처럼 이상향적 사회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상호의 투쟁으로 혁명에 가까운 비참을 피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우리 기독인들이 무엇보다 이웃사랑의 명령을 주님께로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사회과학적으로도 뜻있는 일인가?!

Bibliography

- Buber, M., Der Utopische Sozialismus, Köln 1967.
- Copleston, F., A History of Philosophy Vol IX, London, 1974.
- Hegel, G. W. F., The Philosophy of History, J. Sibree(tr), N. Y. 1956.
- Knox, T. M.(tr.), Hegel's Philosophy of Right, Oxford University, 1975.
- Marcuse, H., Reason and Revolution, London, 1972.
- Ritter, J., Hegel und die französische Revolution, Frankfurt a/M, 1965.

예언 성취에 대한

세대주의 견해 비판

한 진 환*

차례	
I. 서론	2. 이스라엘의 구원
II. 세대주의 예언해석의 원리	3. 이스라엘과 교회
1. 일반적 해석의 원리	V. 왕국과 예언
2. 예언해석의 원리	1. 종말론적 전쟁
III. 영토와 예언	2. 성전 건축과 제사제도의 회복
1. 언약의 조건성	3. 7년대환란
2. 국가적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귀환	4. 유대적 천년왕국
IV. 국가와 예언	VI. 이스라엘의 소망
1. 국가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VII. 결론

I. 서론

現今의 한국 보수주의 장로교 신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학체계중의 하나가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이다. 세대주의는 19C초 영국의 존·넬슨 다비(John Nelson Darby, 1808~1882)를 중심한 플리미스형제단 운동(The Plymouth Brethren movement)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서, 20C에 들어와 미국의 스코필드(C. I. Scofield)의 영향아래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그 성경 해석의 단순성과 종말론적 예언에 대한 강조,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심 등의 특색을 따라 곧 넓게 확산되었다.¹⁾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세대주의는 지속적으로 보수 신학의 일엽을 흐르며 큰 잠재적 영향력을 끼쳐 오고 있다. 오늘날 한국 보수 교회들이 받고 있는 비판의 요인들을 이 주의에서부터 찾을려고 하는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다.²⁾

이러한 영향에 비해서 이 주의에 대한 목회자들의 이해가 너무나 빈약한 현실은 이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가 시급한 과제임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고

*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제34회 졸업, 부평교회 담임목사

하겠다. 그러나 본 小論이 관심하는 바는 특히 세대주의의 예언 해석에 대한 것으로서 보다 細分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대주의의 특징은 그 예언 해석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예언에 대한 연구는 세대주의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보수주의 교회내에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만연하고 있다. 종말론에 관한 대다수의 서적들이 이런 경향을 띠고 있으며, 대다수의 부흥사들과 목회자들도 혹은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이 체계를 응용하고 있다. 또한 해석은 언제나 구체적 적용을 넣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대주의의 환란전 재림설 (pre-tribulationalism)은 독특하고도 심각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중심한 특이한 역사해석은 역사의 진행과 종말을 예견하는 觀의 설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므로 세대주의의 예언 해석은 그 내부적 체계가 가지는 신학적 비중과, 그 적용으로부터 오는 교회적 문제점들과, 역사 전체의 방향성을 규정케 하는 세 계관의 문제 때문에 이미 심각한 신학적 과제가 되어 있으며 바로 그런 점들이 본 小論의 연구 동기가 되었다.

II. 세대주의의 예언 해석 원리

세대주의의 기본되는 특징은 종말론적 사전의 시간적 나열에 있기 보다는 오히려 그 뚜렷한 해석 원리에 있다. 이것을 일반적 해석 원리와 예언 해석의 원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1. 일반적 해석 원리

성경의 如字的 해석 원리는 세대주의 해석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들은 如字의 해석된 것만이 진실한 해석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靈解”요 “풍유적 해석”으로서 별 가치가 없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그들도 모

1) 일제의 팝박아래 있던 한국교회는 자연히 미래 지향적인 종말사상에 치우치게 되었으며 그것은 신도에 대한 저항운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Kum Sam Lee, Christian Confrontation with shinto Nationalism. Amsterdam. 1962. pp.172 ~174 참조

2) “교회론의 암화와 그로인한 교파의 배타주의적 분리현상, 교회의 사회윤리와 사회참여 의식의 결여, 단순한 성경연구와 그로인한 독단적 교리주장 등의 현상은 세대주의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간하배,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의 세대주의”(로고스, 제14집, 총회신학대학 1963) pp. 25~27

든 구절에 다 철저한 如字的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如字의 해석을 포기하고 있다.

- a) 철저한 如字的 해석을 적용할 때 명백한 불합리가 노출되는 문학적 표현이나 고양된 양식의 예언적 言辭가 있을 때³⁾
- b) 지상적 존재인 이스라엘에 반해서 天上的 존재인 교회에 관한 모든 예언은 영적인 성취로 해석해야 한다고 함에 따라 교회에 관한 예언이 나올 때,
- c) 구약에 기록된 어떤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⁴⁾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은 如字의 해석 원리를 따른다는 말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그들의 해석은 이미 설정된 신학 체계에 의해서 조정되는 상대적인 것임에 보다 심각한 헛점이 있다.⁵⁾

2. 예언 해석의 원리

예언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세대주의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특색을 드러내고 있다.⁶⁾

- a) 예언적 言辭 속에 내포된 상징적, 비유적 요소들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如字의 해석이라는 원칙을 따라가면 모든 예언은 확실하고도 명백하게 해석될 수 있다.⁷⁾
- b) 예언적 언약들은 반드시 여자적으로 성취될 무조건적인 것이다.
- c) 예언의 성취에 대한 신약적 해석보다는 예언 자체를 밀하는 구약의 言辭에 더 높은 신뢰를 둔다.⁸⁾
- d) 언약의 무조건성과 해석의 如字主義는 필연적으로 “모든 예언은 미래적 성취를 지시한다”고 하는 미래 지향주의를 낳는다.⁹⁾
- e) 역사의 각 세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세대적 관점에서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적 원리들은 종말론적 예언 해석에 있어서 세대주의적 관점

3) O. T. Allis, prophecy and the church. The Presby. & Ref. Publ. Co., 1974 p. 19

4) 그들의 예언은 여자적으로 역사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신약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구약인물 중 많은 사람이 모형론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모호한 예언들은 엄격한 여자적 원리를 고집하고 있다. Allis, Ibid., pp. 21~24; Scofield, Scofield Reference Bible Correspondence Course, Cichago: Moody Bible Institute, 19th. ed., pp. 45~46. 참조

5) 정당한 여자정의는 F. Hamilton, The Basis of the Millennial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55의 p. 53 참조.

6) Allis, Ibid., pp. 25~54 참조.

들을 뚜렷이 반영해 주고 있다.

III. 영토와 예언 (Land and Prophecy)

국가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한 예언의 성취로 추적하는 세대 주의자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고토 회복과 정치적 독립이 예언성취의 금자탑으로 받아들여짐이 당연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와 그 가운데서의 기적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상깊은 감격적 사건이었다.

구약에 광범하게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드디어 우리 세대에 성취되고 있다는 경이가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한 대대적인 각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실제적인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견해는 세대주의자들에게 唯獨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전통적 입장은 (a) 고토 귀환은 이미 성취된 과거적 사건으로 보든지, (b) 언약의 조건성 때문에 무효화된 사건으로 보든지, (c) 혹은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이미 영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¹⁰⁾ 이와 같은 교회적 입장을 좀더 자세히 밝혀 보기로 하겠다.

1. 언약의 조건성

하나님의 언약은 내적인 고유 법칙에서 자연법적으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사건(a fatum) 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간의 관계의 성격으로부터 여러가지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다. 성경적 증거들은 언약과 신앙, 언약과 예배사이에는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¹¹⁾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변이에 따라 끊임없이 변개되는 선택과 거부(election and rejection)의 역사였다.¹²⁾

그러나 이점에서 세대주의자들의 견해는 전혀 상이하다. Scofield는 예언의 성취를 인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으로 비유하면서, 그 성취는 전적으로 하

7) Gaebe lein은 “예언은 미리 기록된(prewritten) 역사”라는 말로서 이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Allis, Ibid, p. 26

8) 세대주의의 저명한 조직신학자 L. S. Chafer는 “신약은 구약과 상충할 수 없다”고 까지 말한다. Allis, Ibid, p. 48

9) 많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Dispensationalist를 Futurist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10) Philip Mauro, The Gospel of the Kingdom, Boston : Hamilton Brothers, 1928, p. 221

나님의 계획의 불변성에 기초하고 있는 무조건적 성취라고 한다.¹³⁾ 그는 또한 “우리가 미래적 事像들에 대해서 절대적 확실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¹⁴⁾ 이라고 했다.

그러나 언약은 조건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 몇가지 사실에 의해 충분히 증명된다.

- a) 파멸과 축복의 경험을 되풀이 하였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약의 상대성을 뚜렷이 증거한다.
- b) 무조건적 언약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의 言辭의 표현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창17: 8에는 “가나안의 영원한 소유(Eternal possessing)”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소유”가 아론의 제사장직이나(출40: 15) 유월 절(출12: 14), 안식일제도(출31: 17), 다윗의 보좌(삼하 7: 13, 16, 24)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약의 조명에 의하면 이것들은 영원히 존속될 것은 아니다.
- c) 축복의 약속과 형벌의 경고가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예언적 언사들에 있어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신28: 13~6, 45, 46; 렘18: 9, 10; 삼상2: 30; 롬4: 1~2 등)¹⁵⁾
- d) 언약의 무조건적 성취와 계승은 예수의 교훈과도 배치된다(마3: 7~12; 요8: 31~47)¹⁶⁾
- e) 일반적으로 언약의 조건이 언사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문맥의 의미적 상관 관계내에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¹⁷⁾
- f) 실제로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 못지 않게 멸망에 대한 빈

11) G. C. Berkouwer, The Return of Christ, Grand Rapids : Eerdmans, 1972 p. 329

12) 이스라엘에게 언약적 축복에 배치되는 버리움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G. C. Berkouwer, Divine Election, Grand Rapids : Eerdmans., 1985. p. 314 참조

13) G. I. Scofield, Addresses on Prophecy, New York : A. C. Gaebelein, 1910. p. 59

14) Ibid., pp. 56~57

15) L. Boettner, The Millennium, phila : The Presby. & Ref. pub. Co., 1957. p. 378

16) William E. Cox, Biblical Studies in Final Things, phila : presby & Ref. 1967. p. 51

17) Ibid., p. 54 약속과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조건들에 관하여 중요한 chart가 도시되어 있다.

번한 약속이 나타나고 있다. 세대주의자들은 후자와 같은 약속들은 잠정적인 경고(provisional threats)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적 언사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것은 영원한 무조건적 약속으로 멀망에 관한 것은 잠정적인 경고로 각각 나누어 취급함은 자가 당착에 빠지는 것이다.¹⁸⁾

2. 국가적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귀환

언약의 무조건적 성취를 믿는 세대주의자들의 견해는 이스라엘의 고토 회복의 사실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R. Wolff의 말은 이러한 입장을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유대인의 본토 귀환은 그들의 義의 맷가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실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들의 특수한 역사, 박해와 분산의 날 동안의 기적적 생존, 불신가운데서 본국으로의 귀환, 그리고 국가적 이스라엘의 성립 등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나 있던 바로서 이제는 분명한 역사적 실재가 되고 말았다.”¹⁹⁾

그러나 이런 불신앙적 귀환(Return in unbelief)은 결코 선지자들의 신학이 아니요, 성경의 전체적 문맥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고토로의 복귀는 항상 백성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변화가先行되어야 하는 조건적인 것이었다. 무조건적 영토회복 이후에 영적 개심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의 固式은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언약의 전후 관계를 전도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들에 신실하지만 그의 신실성은 약속들에 행해서示했던 조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해야 한다.²⁰⁾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귀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증할 수 있다.

- a)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역사적 증거들이 있다.(민 14:23, ; 시 95:7~11; 히 3:7~19, 4:1~11민 14:39~45) 이러한 원리가 오늘날의 시온이즘(Zionis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타당한 근거는 없다.
- b) 영토에의 귀환을 위한 표준이 영토의 소유를 위한 표준보다 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 1:19; 렘 11:1~8; 왕하 17:7~23 등에

18) Ibid., p. 53

19) R. Wolff, *Israel Act* Ⅲ 유영화譯, 「이스라엘과 인류역사의 종말」, 생명의 말씀사, 1972. p. 37

20) L. A. DeCaro, *Israel Today : Fulfilment of Prophecy?* Phila : Presb. & Ref., 1974. p. 33

21) Ibid., p. 36

는 영토의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이 조건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불신앙이 또한 그 땅으로부터의 추방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됨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²¹⁾

- c) 불순종은 그것이 계속되는 한 결코 어떤 언약적 특권으로도 보상되지 않는다.(겔 33:21~29; 마 3:8~9; 요 8:33~40)

세대주의자들은 영토적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 백성의 불신앙이 예견되어 있다고 하며,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으리라”(겔 22:20)는 말씀을 증거로 인용하고 있다.²²⁾

그러나 에스겔 22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과 그 위에 쏟아질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²³⁾

겔 36:24~28은 정결케 되는 것 이전에 먼저 영토적 회복이 나타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동일 사상을 지시하는 렘 29:13~14와 배치하며, 선지자의 본 의도도 사건의 전후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를 드러내고자 함에 있다.

그 외에도 겔 39:25~29; 레 26:40~42; 신 30:1~6; 왕상 8:33, 34; 46~50; 느 1:8~9; 렘 15:19; 50:4~5; 단 9:1~16; 습 3:18~20 호 11:10~11; 롬 11:23 등의 언약은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지시하는 이미 성취된 것들이거나, 신앙과 순종을 조건으로한 상대적인 것이거나,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 대한 것들이다.²⁴⁾

IV. 국가와 예언(Nation and prophecy)

1. 국가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국가적회복과 변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주장함은 이스라엘이라는 용어의 단일 용법을 전제한 것이다. 여자적 해석 원리를 따르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이스라엘 (National Israel)과 영적 이스라엘 이외의 무엇은 아니라고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은 그 말이 가지는 외면과 내포에 있

22) Wilber M. Smith, *Israeli-Arab Conflict and the Bible*, Glendale : Regal Books, 1967. p. 28

23) DeCaro. op. cit., p. 39

24) Ibid., p. 40

25) Ibid., p. 41

어서 전혀 동일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점진적인 구속의 역사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해석체계에 제한되지 않는다. 세대주의자들에 의해 종말론적으로 해석되는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신약에는 오히려 모형론적으로, 혹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증거되고 있다.²⁶⁾

주의 깊은 주석적 연구를 통해 볼 때 신약은 국가적 이스라엘(Spiritual Israel)을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음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전자는 행 13:45, 46; 마 3:9, 10; 21; 19, 42, 43; 23:38 놀 14:24, 빌 3:2; 롬 2:28, 29; 9:6 등에 나타나며, 후자는 롬 4:17; 11:26; 마 19:28; 앨 2:11~16; 3:6; 갈 3:7~10; 6:16 빌 3:3 등에 나타나고 있다.²⁷⁾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가진 민족이었다. (롬 3:1~2) 구약의 역사는 이러한 특수한 선택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로 말미암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폐역과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정적으로 파기함으로 그 특별한 지위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²⁸⁾

언약은 언제나 순종과 상관된 것이므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정당한 계약자의 위치를 이탈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개입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을 새로운 영적 질서 가운데 세우게 되었다. (갈 3:8~9, 26~29; 앨 2:11~19; 골 3:11)

국가적 이스라엘은 점진적인 구속 사역의 진행 가운데서 영적 이스라엘로 대치되고, 국가적 이스라엘의 축복과 사명은 영적 이스라엘로 옮겨 갔다. 구원은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며(롬 9:6~8; 갈 3:6~7; 빌 3:2~3) 구원 얻기로 작정된 것은 민족 전체가 아니라 오직 남은 자 뿐이다. (롬 3:4; 9:27~29; 11:5)

2. 이스라엘의 구원

바울을 중심한 신약적 계시는 국가적 이스라엘의 특권과 사명이 영적 이스라

엘(教會)의 새로운 실존으로 변이 발전되어 간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계시의 점진적 진행의 조명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구원은 이미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만다. 그것은 계시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가 당할 환란과 시험, 배교와 타락을 예언하면서 유대의 국가적 회복이나 회심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언급도 하지 않았으셨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배척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상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다. (마 8:11; 12:21; 28~46; 22:1~14; 놀 13:6:9)²⁹⁾

롬 9~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다. 사도는 여기서 대다수 유대인들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 가를 밝히고 있다. 먼저 9~10장에서 그 구원의 약속은 협통적 이스라엘에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은 협통적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여전히 택자를 모으고 계시며, 지금도 은혜의 택함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고 한다. (11:1~10)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완악하게 된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며, 오히려 그 결과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하는 방도일 따름이다. 또한 이방인이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은 이스라엘에게 자국이 되어 그의 구원도 확산케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11:14, 31~32) 이스라엘의 완악은 언제나 부분적인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택자를 모으기를 계속하시며 그래서 모든 택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11:26)

여기서 세대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은 봄 11:26이다. 그들은 이 구절 이야 말로 국가적 이스라엘의 전체적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개 다음 세 가지로 간추려 볼 수 있다.³⁰⁾

- (A) 국가적 이스라엘의 전체적 개심으로 보는 견해
세대주의자들과 G. E. Ladd, C. Hodge, J. Murray, O. Cullman, G. Vos 등이 여기에 속한다.
- (B)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모든 택자의 구원을 가르친다고 보는 견해
J. Calvin이 여기에 속한다.

26) 울 2:28~32과 행 2:16~21, 호 1:10; 2:23과 베전 2:10, 앨 31:31과 하 10:15~20, 사 61:18~19와 놀 4:16~21, 시 16:31과 행 2:29~36, 암 9:11과 행 15장 등.

27) Cox, op. cit., p. 69~70

28) 봄 9:31~33; 10:3, 4; 2:3; 3:19; 살전 2:14, 15

29)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p. 698~700

30) A. A. Hoekem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 Eerdmans, 1979, pp. 139~140을 참조하라.

(C) 유대인들 가운데서 모든 택자의 구원을 가르친다고 보는 견해

H. Babinck, L. Berkhof, G. Berkowwer, W. Hendriksen, H. Ridderbos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A)의 견해는, 종말에 일어날 이 국가적 회심은 분명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대에만 관계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all)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26절의 *οὐτως*가 시간적 연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적 연관 관계를 말하고 있음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한다. (B)의 견해도,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11번의 이스라엘이 모두 육신적 유대인을 가르키는데 유독 여기서만 영적 이스라엘을 가르킨다고 하는 타당치 못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³¹⁾

바른 해석은 (C)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다. 이 구절의 해석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부사 *οὐτως*에 있다.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시도하는 것과 같은 *το τεποτα*의 의미가 아니고 thus, so, in this way의 의미이다.³²⁾

*οὐτως*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이방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을 차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배도는 언제나 부분적인 것이었다.³³⁾ 항상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으므로(11: 5) 그들의 회심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계속적인 것이다.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회심도 계속될 것이고 전술한 하나님의 오묘한 방식을 따라서 종국에는 모든 택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1: 26은 11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식을 서술하는 문맥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한다. 11장의 핵심은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혀지는 것이며(11: 17~24), 꺾이움과 접붙히움은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순종에 좌우될 따름이다.(11: 23~24) 그러므로 11: 26에서 갑자기 혈통적 유대인들의 돌연한 구원이 증거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불합리하며 무리한 것이다. 그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계시의 진행에 역행하는 것이다.

3. 이스라엘과 교회

언약의 무조건적 성취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은 대다수의 언약들을 미성취된 것으로서 미래의 그리스도의 지상통치를 통해서 실현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 구속 사역은 순전히 이스라엘과의 언약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연법적 역사 진행의 과정을 믿을 때 구속사에 있어서 교회가 설 자리는 제한되어 버린다. 세대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돌연적이며, 부차적으로 삽입된 실체라고 주장한다. H. Ironside는 교회를 parenthesis라고 불렀고 L. Chafer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부수적인 것일 따름이라고 했다.³⁴⁾ Chafer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과 교회에 대한 언약을 하나로 묶는 “한 은혜 계약 사상”(one-covenant-of-grace-idea)은 이상주의이며 성경을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³⁵⁾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바울의 진술은 그러한 주장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무산되어 버렸고(롬 9: 31~33; 10: 3, 4; 2; 3; 살전 2: 14~15)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은 허물어져 버렸다.(갈 3: 8, 9, 26~29; 엡 2: 11~19; 4: 4 ~ 6; 골 3: 11)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하던 모든 언약들은 혈통적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의 참 본질(identity)을 가진 믿음의 후손들(教會)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롬 9: 6~8; 갈 3: 6~7; 빌 3: 2~3)

바울이 교회를 신비적 존재로 말했으나 그것은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듯 돌연한 삽입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³⁶⁾

또한 갈 6: 15~16에는 “이스라엘”과 “이 규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실체를 지시하는 병렬적 용법으로 사용함으로 교회와 참 이스라엘을 동일시하고 있다. 행 13: 32~34, 38~39에는 조상들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의 부활로 성취되었고 그 부활 안에서 신약의 백성들(教會)은 다윗에게 참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바울은 또한 혈통적 유대인을 지시 하던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사용하고 있다.(갈 3: 28~29) 시온과 예루살렘은 각각 지리적 장소

31) J.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s to the Romans*

32) Cox, op. cit., p. 77

33) 세대주의자들은 25절의 “ἀπό μέρους”를 “for a while”로 해석해서 종말적 회심을 유도하려고 하나 그것은 명확히 “in part”를 가리키는 양적인 것이다. Hoeke-ma Ibid., pp. 142~145, Cox, op. cit., p. 78 참조

34) L. S Chafer, *Systematic Theology*. Dallas : Dallas Seminary press, 1948
II. p. 96; C.I. Scofield, *Addresses on prophecy*, pp. 30~41

35) Chafer, op. cit., p. 97

36) Allis, op. cit., p. 92~95

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신약에는 그 밀들이 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히 12: 22~24에는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을 구속받은 성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표현들로써 신약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다.(사 43: 20; 출 19: 6, 5과 벤전 2: 9을 비교해보라) 이스라엘을 위한 최초의 구약적 언약에서도 그 민족의 혈통적 계보를 따른 특권보다는 오히려 그 민족을 통한 세상 모든 열방의 축복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창 12: 2 ~ 3; 22: 18)

이상과 같은 성경적 증거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2분법적으로 구별하여 상이한 원리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단정하는 세대주의의 입장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³⁷⁾

V. 왕국과 예언(Kingdom and Prophecy)

1. 종말론적 전쟁

단 11장,겔 38~39장, 속 12~14장 등에는 종말론적 전쟁의 양태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기적적 운명을 주시하는 세대주의자들은 항상 이 전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그들은 이 예언적 전쟁을 생생한 현실적 실재로 재생해 내었고 확고한 신념 가운데서 현재의 국가들과 연관짓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히 풀 것이 아니라”(벤후 1:20)고 하는 베드로의 훈계를 무시한 그들의 해석은 무모하고 억측스런 단정위에 세워져 있다.

Walvoord는 “꼭”(겔 38: 2)을 러시아라고 단정하면서 지리적 증거와 어원적 증거를 들고 있다.³⁸⁾

그러나 롯(Roth)과 러시아(Russia)의 유사성, 메세과 모스크바, 두발과 도볼스크(Tobolsk)와의 유사성에 착안한 그러한 주장은 순전한 우연성에 기인한 것 이요 학적 증거로 볼 수 없다. H. Lindsay는 겸 38: 5~6에서 파시는 이란으로, 구스는 이디오피아로, 붓은 리비야로, 고멜과 그 모든 집단은 철의 장막 국

37) Hoekema, op. cit., p. 201

38) John F. Walvoord, The prophetic word and Russia, (West coast prophetic congress(ed.), The prophetic Word in Crisis Days. Findley : Durham pub. 1961) pp. 107~126

가들로, 도갈마와 그 모든 집단은 남부 러시아 나라들로 단정짓고 있으며,³⁹⁾ Hoyt는 단 2장의 열 발가락과 단 7장의 열뿔, 열 왕은 모두 유럽의 열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인했다.⁴⁰⁾

이러한 유형으로 모든 종말적 전쟁을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원리는 또 다른 eisegetical hermeneutics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해석 체계는 모호한 예언적 언사들을 확연한 현재적 정치 상황의 조명 가운데 취사선택함으로 세워져 있음이 분명하다. Walvoord가 겸 38: 11의 “성벽 없는” 이스라엘의 묘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적 상황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고 고무하고 있으나, 동일한 문장안에 있는 “문”이나 “빗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나,⁴¹⁾ 38: 22의 “폭우, 큰 우박덩이, 불, 유황”은 오히려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은⁴²⁾ 이러한 약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적 전쟁에 대한 해석은 여자적인 것도 상징적인 것도 아니요, 오직 기정의 선입관에 따른 eisegesis에 불과하다.

2. 성전 건축과 제사 제도의 회복

에스겔서 40~46장에는 인상 깊은 성전 건축의 장면이 나타나 있다. 세대주의자들은 시온산 위에 세워질 이 성전이 종말론적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한 중요한 진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테살로니카후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종말론적 사건들에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일체의 언급도 없다. 2: 4의 “성전”이라는 말은 전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자의 모임(Assembly)으로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엡 2: 21 참조) 문맥 관계에서 볼 때 강조점은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을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⁴³⁾

더군다나 겸 40~46장은 예언이라기 보다는 일단의 교훈을 위해 주어진 것 같아 보인다.(43: 10, 11; 47장 참조)⁴⁴⁾ 그렇다면 이 예언은 기계적 성취로 귀결되어야만 할 이유가 없다. 포로 후 시대의 사람들이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39) H. Lindsay, The Late great planet Earth. 김재권 역, 「대유성 지구의 종말」(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77. pp. 66~70

40) H. A. Hoyt, The prophetic word and Europe in The Prophetic word in Crisis Days. pp. 63~77

41) Walvoord, op. cit., p. 115

42) Ibid., pp. 117~118

43) J. B. Payne, The Imminent Appearing of Christ. Grand Rapids : Eerdmans, 1962. p. 147

은 전혀 에스겔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43:18~27에 나오는 속죄제와 화목제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40장 이하의 전 예언들이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이후로 이러한 의식적 제사는 다 폐하여 졌기 때문이다. (히 10:9~10; 9:11, 26) 이 점에 대하여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 때의 제사는 기념적 성격의 제사(memorial sacrifice)고 화목을 위한 것은 아니라 고 한다.⁴⁴⁾ 그러나겔 45:15, 17, 20에는 이 제사의 목적이 그림의 piel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화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동사는 모세 5경에 나오는 화목을 위한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말이다.⁴⁵⁾

전체적 문맥에서 볼 때 이 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이고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포로시대 이전의 그들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집약되어 있었으므로 에스겔은 성전과 제사 제도를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복된 미래를 그릴려고 한 것이다.

에스겔은 40~48장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땅의 최후적인 완성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겔 당시에 친숙했던 종교적 상징으로써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⁴⁶⁾

사도 요한은 종말론적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매우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다.⁴⁷⁾

3. 7년 대환란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 사건의 도식에 있어서 역사적 전 천년주의와도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7년동안의 대환란에 관한 것이다. 교회가 휴거된 후부터 시작되는 대환란은 국가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역사의 종국을 장식하는 마지막 대형별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도, 7년 대환란에 대해서도 그들의 주장과 같은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교회의 환란전 휴거를 말하는 구절은 없으며, 그들의

증거는 간접적이고 모호한 표현들을 빌어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휴거는 엄격한 주석적 연구를 거친 결론이 아니고, 교회를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부터 분리시킬려고 하는 독특한 교회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⁴⁸⁾

휴거 이후의 7년 대환란은 전적으로 단 9장에 의해서 해석되고 있다. 그들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이례(단 9:26)를 순전히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⁴⁹⁾ 그 7년의 처음에 적 그리스도가 유대와 언약을 맺고 팔레스타인에 유대주의를 충분히 부활시키며 성전 건축도 허용하게 되나, 7년의 중간에 그는 돌연 언약을 깨뜨리고 유대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며, 동시에 종말적 전쟁이 대실륙 가운데 진행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재림으로 인해 열방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다음 세가지 사실로써 그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a) 그들의 주장은 연대의 계속에 관한 비 문자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첫 이례 다음에 둘째 이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이례가 계속되는 것이라면 69이례 다음에 70이례가 연속되어야 함이 정당하다. 유독 그 사이에 만진 간격이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다.⁵¹⁾

(b) 언약에 관한 단 9:27의 동사는 “to cause to prevail”인데 이것은 이미 있었던 언약에 관한 것이지 새 언약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 어디서도 적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을 것이라는 시사를 주는 구절은 없다.

(c) 전통적 해석은 70이례를 여자적인 490년으로 생각하나 세대주의자들은 69이례를 수난 주일까지로 맞추기 위해서 그 예언의 시작을 예루살렘 중건의 두번째 명령이 난 때(느헤미야시대인 BC 444년)로 잡으며, 일년을 “prophetic year”라고 해서 360일로 계산함으로 연대를 맞출려고 하는 비 문자적 방법을 택하고 있다.⁵²⁾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은 다니엘의 70이례를 이미 성취된 과거적 사건

44) J. Calvin, Commentary on the Ezekiel. 이 부분 해석을 보라.

45) Allis, op. cit., p. 246

46) 레 6:30; 8:15; 16:6, 11, 24, 30, 32, 33, 34; 민 5:8; 15:28; 29:5
을 보라. op. cit., p. 247

47) Hoekema, op. cit., p. 205

48) 제 22장 참조 Loc. cit

49) Walvoord는 “교회의 휴거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회라는 말의 정의에 있다. 그러므로 휴거문제는 종말론(eschatology)보다는 교회론(ecclesiology)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고 했다. J. F. Walvoord, The Rapture Question, Findley : Dunham, pub 1957, pp. 15~16

50) “70이례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할 만한 역사의 증거가 전혀 없다. Walvoord, op. cit., p. 24

51) H. Lindsay, op. cit., pp. 155~178 H. A. Ironside, Not Wrath, But Rapture. New York : Loizeaux. n. d., 1950 p. 34

G. E Ladd, Blessed Hope. Grand Rapids : Eerdmans, 1948. p. 115

52) Hengstenberg, The Christology in Old Testament, vol III. p. 143

53) J. B Payne, op. cit., p. 151

으로 보는 것이다.

이 예언적 사건들의 출발점은 예루살렘을 중진하라는 명령이 나는 것인데(25절) 이것은 에스라에 의해 BC 458년에 시작된 첫번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에스라 4 : 11~12, 23, 9 : 9 참조)

그로부터 69이레(483년)가 지나면 AD 26년인데 이 때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던 해인 것이다. 그러므로 26~27절은 마지막 이레(7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의 제도(economy)를 끝내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셈이 된다. 마지막 3년반 동안에는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확고해지며(행 2 : 38 참조) 바울이 회심하는 AD. 33년에 종결지어 지게 된다. 이 때에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쳐 죽임으로 새 언약하의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끊어졌고(예 12 : 6, 14 참조) 곧 이어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파괴 되었다.(단 9 : 26)

다니엘의 70이레는 이상과 같이 과거적 성취로 보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일반적 견해였다.⁵⁴⁾

4. 유대적 천년 왕국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을 국가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실현될 가시적 지상 왕국으로 본다.⁵⁵⁾ 그러나 구약에는 그러한 성격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천년 왕국을 지시하고 있다고 제시되는 구절들도 실제로는 모두가 구속 사역의 결정을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이다.

가장 유명한 증거구인 사 65 : 17~25도 17절 초두에 있는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이다.⁵⁶⁾ 20절의 “죽음”은 어떤 현상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정의 장수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다.⁵⁷⁾

사 11 : 6~10이 어떤 지상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것을

54) Ibid., p. 149

55) 세대주의자들의 왕국에 대한 견해는 Ladd를 참고하라.

G. E. Ladd, Crucial Questions about the Kingdom of God. Grand Rapids : Eerdmans., 1952. pp. 50~51

56) New Scofield Bible에는 17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으로, 그리고 18~25절은 “천년 왕국”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18절 이하는 17절에 대한 상술이다. Hoekema, Ibid. pp. 201~205

57) New International Version(1978), Today's English Version, Jerusalem Bible 등에는 모두 “he who dies at a hundred will be thought a mere youth”, he who fails to reach a hundred will be considered accursed”로 되어 있다.

꼭 천년 왕국에만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 그들의 주장대로 천년 왕국 시대에는 수를 알지 못하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9절과는 모순됨을 설명할 수 없다.

겔 40~48장은 천년 왕국 때에 유대를 중심으로 재건될 성전과 각종 제사 제도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짐승의 희생 제사는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폐하여 졌다고 하는 보다 확실한 신약적 해석은 그러한 해석을 배격하고 있다.

사 2 : 1~4도 지상적 천년 왕국의 증거구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전쟁의 완전한 종결이나 모든 국가의 하나님 예배가 아직 실현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들은 오히려 궁극적인 축복과 완성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봄이 더 타당하다.

본 장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역사적 전 천년주의의 입장은 관설할 필요는 없다. 단지 천년 왕국의 유대적 성격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의 견해를 비판할 뿐이다. 사 60 : 21의 “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이다.⁵⁸⁾ 바울의 교훈대로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 있을 때 름이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언약적 특권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참 이스라엘에게로 옮겨졌다. 또한 성전 건축과 제사 제도의 회복은 명백한 신약의 정신과 상충된다. 유대인의 혈통을 따른 특별한 지위와 제도가 왕국 시대에 다시금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조명을 받지 못한다.

VII. 이스라엘의 소망

바울은 “천하 인간에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함으로 그리스도는 만민의 유일한 소망임을 분명히 밝혔다. 여기에 유대인도 예외일 수 없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 구원의 날 동안에 그 분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불신의 유대인들은 불신의 이방인들과 꼭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이 역사적 교회의 입장에서부터 이탈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적 이스라엘은 두번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

58) Allis op. cit., p. 245

고 육신적 혈통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⁵⁹⁾. J. N. Darby는 예수의 지상 사역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사역은 완성되었지만 그의 유업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⁶⁰⁾ 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은 천년동안의 지상 통치에 있다고 한다. 이 통치가 그리스도의 초림시에 그들에게 제공 되었지만 그들의 거부로 인하여 연기되었으며, 이제 종말론적으로 이 통치가 실현될 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은 왕노릇하게 된다고 한다.⁶¹⁾ Darby는 특별히 지상에 건설될 왕국은 중보적 왕국(mediatorial kingdom)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책임으로부터 이루어진 여자적 예언 성취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신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받을 진정한 유업의 그림자에 불과하다.(히 11: 8, 13~16, 39, 40)⁶²⁾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축복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은 믿음의 자손들만이 구속 받은 축복의 자손들이다.⁶³⁾

사도 베드로도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진 하늘에 간직해 둔 것이라고 했다.(벧전 1: 4) 그리고 그 소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벧전 1: 3)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눅 1: 54, 55, 68, ~74)⁶⁴⁾

모든 인생들의 복스러운 소망은 오직 “크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데 있을 따름일진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딛 2: 13) 그리스도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다.(딤전 1: 1)⁶⁵⁾

VII. 결 론

오늘날 한국 보수 교회들에 큰 잠재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대주의는 전체적으로 잘못된 신학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의 종말론은 국가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것은 전제부터가 계시의 진행에 역류하는

59) Cox. Ibid., p. 89

60) J. N. Darby, The Hopes of the Church of God p. 15

61) Bass, op. cit., pp. 139~140

62) Cox. op. cit., p. 90

63) 롬 9: 6~8 ; 갈 3: 16

64) Cox, op. cit., p. 92

66) Payne, op. cit., p. 161

것이다. 그들의 해석 원리는 여자적 해석이라는 단순성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것 또한 일관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를 이 역사로부터 제거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국가적 이스라엘의 구원과 유업은 이 주의의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전체적 성경의 조명에서 볼 때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소망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과 순종에 있을 때이다.

참 고 문 헌

- Allis, O. T., Prophecy and the Church, presby & Ref. 1974.
-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60.
- Berkouwer, G. C., The Return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72.
- Boettner, L., The Millennium, phila: presby & Ref., 1957.
- Chafer, L. S., Systematic Theology, Dallas: Dallas Seminary Press, 1948.
- Cox, W. E., Biblical Studies in Final Things, Phila: Presby & Ref. 1967.
- DeCaro, L. A., Israel Today: Fulfillment of prophecy? Phila: Preby. & Ref., 1974. Presby
- Hamilton, F., The Basic of the Millennial Faith, Grand Rapizls: Eerdmans, 1955.
- Henstenberg, The Christology in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840.
- Hoekema, A. 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Eermans, 1979.
- Lindsay, H. The Late Great Planet Earth, 김재권 역, 대유성 지구의 종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 Mauro, P., the Gospel of the Kingdom, Boston: Hamilton Brothers, 1928.
- Payne, J. B., The Imminent Appearing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62.
- Smith, W. B., Israel -Arab Conflict and the Bible Glendale: Regal Books, 1967.
- Walvoord, J. F., The Rapture Question, Findley: Dunham pub., 1957.
- Wolff, R., Israel Act III, 유영화 역, 이스라엘과 인류 역사의 종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2.